



2024년 10월 4일

Weekly Macro, 무엇을 봐야 할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Economist 김유미 helloym@kiwoom.com| RA 조재환 direction@kiwoom.com

키움증권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통화정책

다음 주에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 물가 흐름, 한국 통화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동발 리스크에 따른 국제유가 움직임이 연준 통화정책 불확실성을 자극할 수 있다. 물론, 다음주 발표될 미국 소비자물가의 둔화세가 지속되면서 올해 연준의 금리 인하 행보는 지속될 것으로 본다. 다만, 점진적인 근원물가의 둔화 흐름 속에서 비용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연준 최종금리 수준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 한국에서는 25bp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되며 한은총재의 발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주에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며 금융시장 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었다.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공격에 이어 이란의 보복, 그리고 이에 대한 공격 우려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대이란 보복 공격 가능성을 거론한 이후 국제유가가 급등하며 관련 우려감을 높이고 있다. 중동전쟁의 확산 가능성을 놓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들 움직임에 금융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는 정치적인 이슈가 강한 만큼 쉽게 예단하기 어렵다. 서방국가까지 참여하며 관련 전쟁이 확산될 가능성은 일단 낮게 보지만 국지적으로 중동 내에서의 마찰은 당분간 국제유가의 변동성 및 금융시장의 불안운 수시로 자극할 수 있다. 다음 주에는 미국에서 CPI와 PPI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다. 시장 컨센서스를 살펴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둔화세는 에너지 가격을 중심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헤드라인 9월 CPI의 경우 전월비 0.1%, 전년동월비 2.3%(8월 0.2%, 3.5%)로 둔화되고 근원 CPI는 전월비 0.2%, 전년동월비 3.2%(8월 0.3%, 3.2%)를 기록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다.

지난 해 10월 국제유가(WTI) 평균이 배럴당 85.5 달러였음을 고려할 때 올해 10월에 이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까지 유가가 오르지 않는다면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에 그칠 수 있다. 클리블랜드 연은 물가 전망치에 따르면 10월에는 현재 CPI 상승률이 2.46%로 9월 보다 소폭 확대되지만 근원물가의 점진적인 둔화 흐름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확대되며 인플레이션 경계감을 높일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연준의 최종금리 수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며 주요 가격 변수가 당분간 불안정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

한편, 한국에서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되어 있다. 기준금리는 3.25%로 25bp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및 가계부채 등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연준의 빅컷 금리 인하가 단행되었던 만큼 한국도 25bp 정도의 금리 인하는 가능해 보인다. 추가 금리 인하 여부를 둘러싸고 불확실성이 큰 만큼 한은 총재의 발언에 관심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사, 배포, 전승,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Weekly Macro, 무엇을 봐야 할까?

다음주 주간 매크로 이벤트 (10/7~1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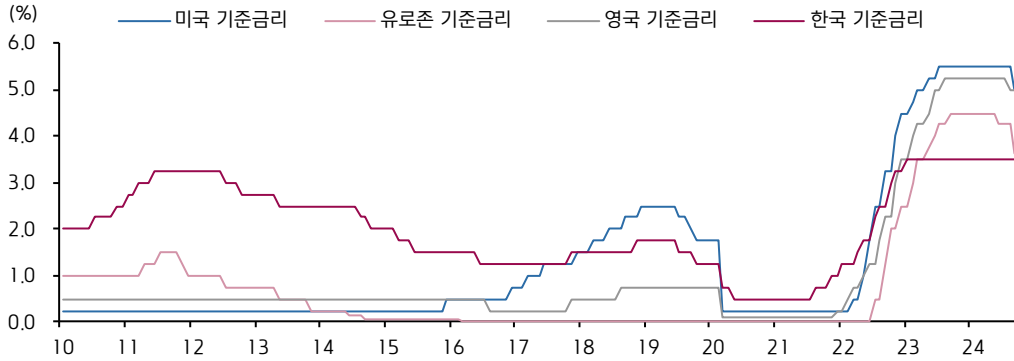
일자	주요 경제지표 일정 및 이벤트	컨센서스	이전치(잠정치)
10/7	유로존 Sentix 투자자신뢰지수 (10 월)	-	-15.4
	유로존 소매판매 (MoM) (8 월)	0.2%	0.1%
	유로존 소매판매 (YoY) (8 월)	1.0%	-0.1%
	미국 CB 고용동향지수 (9 월)	-	109.04
10/8	한국 경상수지 (8 월)	-	9.13B
	독일 산업생산 (MoM) (8 월)	-	-2.4%
	독일 산업생산 (YoY) (8 월)	-	-5.29%
	미국 전미자영업연맹 소기업 낙관지수 (9 월)	91.7	91.2
10/9	미국 FOMC 의사록 공개 (9 월)	-	-
	독일 무역수지 (8 월)	-	16.8B
10/10	미국 근원 CPI (MoM) (9 월)	0.2%	0.3%
	미국 근원 CPI (YoY) (9 월)	3.2%	3.2%
	미국 CPI (YoY) (9 월)	2.3%	2.5%
	미국 CPI (MoM) (9 월)	0.1%	0.2%
10/11	한국 금리 결정 (10 월)	3.25%	3.50%
	독일 CPI (YoY) (9 월)	-	1.9%
	독일 CPI (MoM) (9 월)	-	-0.1%
	미국 근원 PPI (MoM) (9 월)	0.2%	0.3%
	미국 PPI (MoM) (9 월)	0.1%	0.2%
	미국 PPI (YoY) (9 월)	1.7%	1.7%
	미국 미시간대 1년 기대인플레이 (10 월)	-	2.7%
	미국 미시간대 5-10년 기대인플레이 (10 월)	-	3.1%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기대지수 (10 월)	-	74.4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10 월)	70.0	70.1
	중국 CPI (MoM) (9 월) (13 일)	-	0.4%
중국 CPI (YoY) (9 월) (13 일)	-	0.6%	
중국 PPI (YoY) (9 월) (13 일)	-	-1.8%	
연준위원 발언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10/7), 애틀란타,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구글러 미 연준 이사(10/8), 애틀란타, 댈러스, 시카고 연은 총재(10/9), 뉴욕,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10/10), 시카고, 댈러스 연은 총재(10/11)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Weekly Macro, 무엇을 봐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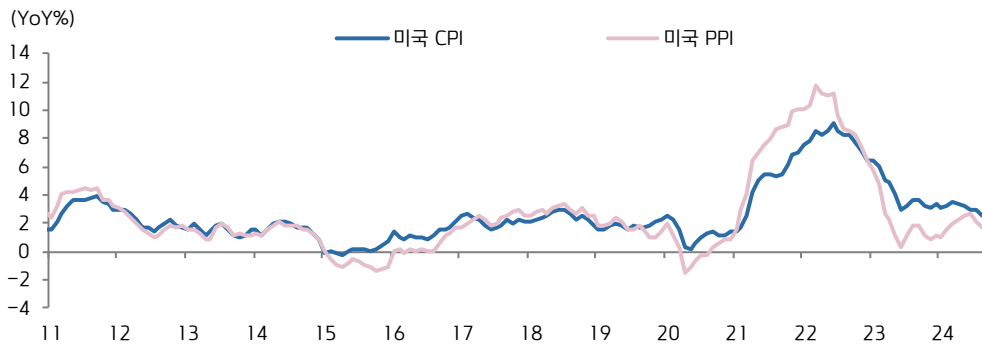
다음주 눈 여겨 봐야 할 지표

주요국 기준금리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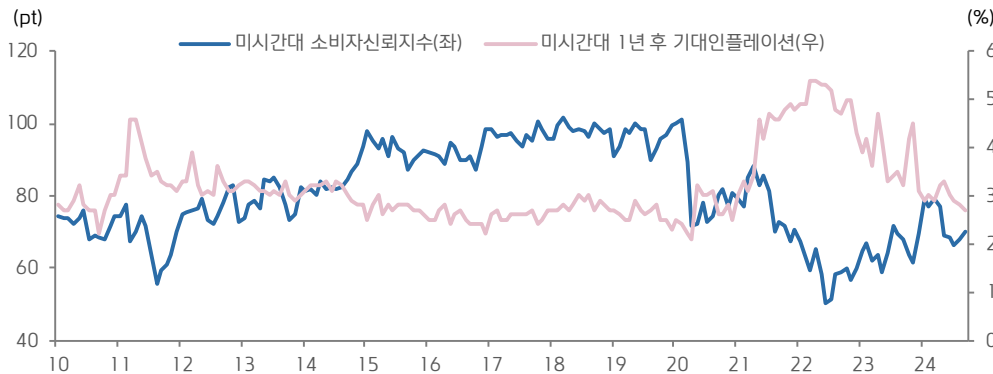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CPI 및 PPI의 변화 추이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미시간대 소비자신뢰지수 및 1년 후 기대인플레이션 변화 추이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금주 글로벌 경기 동향 및 이벤트 (9/30~10/4)

한국 9월 수출 실적, 역대 9월 중 최대치 달성

1 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4년 9월 한국의 수출액은 587.7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7.5% 상승하며 전월치(11.2%) 하회. 수입의 경우 521.2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2.2% 상승하며 역시 전월치(6.0%) 하회. 무역수지는 66.6억 달러 흑자 기록. 그 중 수출의 경우 역대 9월 중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동시에 2024년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음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수출 실적은 반도체가 이끌었음.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는 136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월대비 37.1% 상승, 11개월 연속 수출액 증가세를 보였음. 지역 기준으로는 대(對)중국 수출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117억 달러(+6.3%)를 기록했으며, 대(對)미국 수출 또한 전년동월대비 3.4% 상승하며 145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음. 그 덕에 9월 무역수지는 16개월 연속 흑자 흐름 지속 중

미 8월 JOLTs 구인건수는 804.4만 건으로 전월치 및 예상치를 모두 하회

1 일 미 노동부에 따르면, 미 8월 JOLTs 구인건수는 804.4만 건으로 전월치(771.1만) 및 예상치(764만)를 모두 상회. 세부 지표를 보면, 채용건수는 531.7만 건으로 전월치(541.6만)를 하회했으며, 퇴직 건수 또한 499.7만 건으로 전월치(531.4만)를 하회했음. 파월 미 연준의장이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JOLTs 상 구인건수를 실업자 수로 나눈 값인 구인배율의 경우 1.13배로 전달의 1.08배에서 개선되었음.

구인배율이 여전히 1을 상회할 뿐만 아니라, 8월 해고율 또한 1.0%로 전달 대비 0.1%p 하락했음. 이처럼 전월에 비해 미 고용 여건이 개선되었음이 드러나며 11월 FOMC에서 기준금리 25bp 인하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상태. 파월 의장 또한 실업률이 자연실업을 추정 범위 내에 있다며 노동시장의 견조함을 강조했으며 CME FedWatch 상 11월 기준금리 25bp 인하 가능성은 63% 수준까지 상승한 상태

한국 9월 CPI, 전월대비 1.6%로 2% 하회

2 일 한국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한국의 9월 CPI는 전년동월대비 1.6% 상승해 전월치(2.0%)를 하회했음. CPI가 1%대를 기록한 것은 2021년 3월 이후 3년 7개월 만의 최저치.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특히 전년동월대비 기준 생활물가지수의 증가율이 하락(2.1%→1.5%) 했으며 품목별 기준으로는 공업제품의 증가율이 큰 폭으로 하락(1.4%→0.3%)했음

통계청의 공미속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하며 이번 CPI가 전월치를 하회한 원인으로 지난해 유가가 높은 기저효과와 최근의 국제유가 하락을 제시했으며,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물가의 하향 안정세가 자리잡고 있다고 평가. 여기에 한국은행은 CPI 발표 이후 진행된 물가상황점검회의에서 중동사태에 따른 유가 불확실성이 크다면서도, CPI는 당분간 2%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했음

Weekly Macro, 무엇을 봐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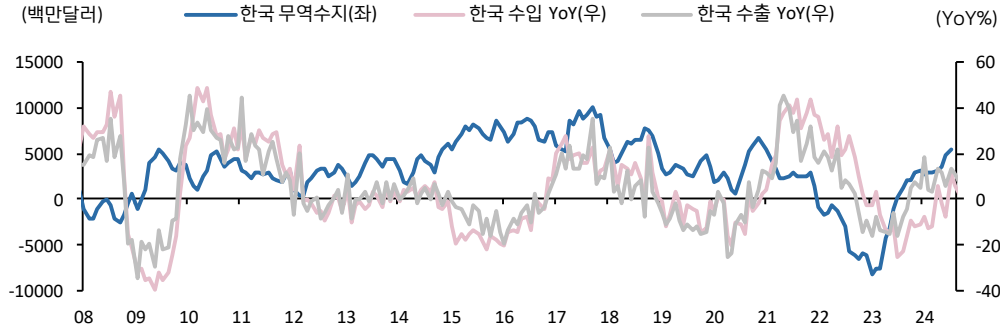
금주 주간 매크로 이벤트

일자	주요 경제지표 일정 및 이벤트	발표치	컨센서스	이전치(잠정치)
9/30	한국 산업생산 (YoY) (8 월)	3.8%	1.9%	5.2%
	한국 산업생산 (MoM) (8 월)	4.1%	2.8%	-3.9%
	중국 제조업 PMI (9 월)	49.8	49.4	49.1
	중국 비제조업 PMI (9 월)	50.0	50.4	50.3
	중국 Caixin 제조업 PMI (9 월)	49.3	50.5	50.4
	중국 Caixin 서비스 PMI (9 월)	50.3	51.6	51.6
	독일 CPI (YoY) (9 월)	1.6%	1.7%	1.9%
	독일 CPI (MoM) (9 월)	0.0%	0.1%	-0.1%
	미국 MNI 시카고 PMI (9 월)	46.6	46.0	46.1
	미국 델러스 연준 제조업활동지수 (9 월)	-9.0	-10.8	-9.7
10/1	한국 수출액 (YoY) (9 월)	7.5%	6.4%	11.2%
	한국 수입액 (YoY) (9 월)	2.2%	5.0%	6.0%
	한국 무역수지 (9 월)	\$6,658m	\$5,000m	\$3,770m
	미국 제조업 PMI 확정치 (9 월)	47.3	47.0	47.0
	미국 ISM 제조업 PMI (9 월)	47.2	47.5	47.2
	미국 노동부 JOLTs (구인, 이직 보고서) (8 월)	8,040M	7,693M	7,711M
10/2	한국 CPI (MoM) (9 월)	0.1%	0.4%	0.4%
	한국 CPI (YoY) (9 월)	1.6%	1.9%	2.0%
	유로존 실업률 (8 월)	6.4%	6.4%	6.4%
	미국 ADP 비농업부문 고용 변화 (9 월)	143K	125K	103K
10/3	유로존 서비스 PMI (9 월, 확정치)	51.4	50.5	52.9(50.5)
	미국 ISM 비제조업 지수 (9 월)	54.9	51.7	51.5
10/4	미국 평균 시간당 임금 (MoM) (9 월)		0.3%	0.4%
	미국 비농업고용지수 (9 월)		150K	142K
	미국 경제활동참가율 (9 월)		62.7%	62.7%
	미국 실업률 (9 월)		4.2%	4.2%
연준위원 발언	미 연준의장(9/30), 애틀란타, 보스턴, 리치몬드 연은 총재(10/1), 클리블랜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보우만 미 연준 이사(10/2),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10/3)			

자료: Bloomberg, 카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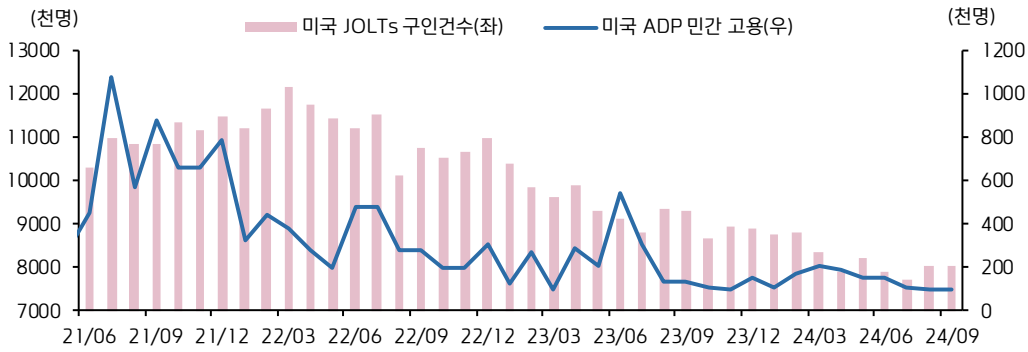
Weekly Macro, 무엇을 봐야 할까?

한국 무역수지, 수출액 및 수입액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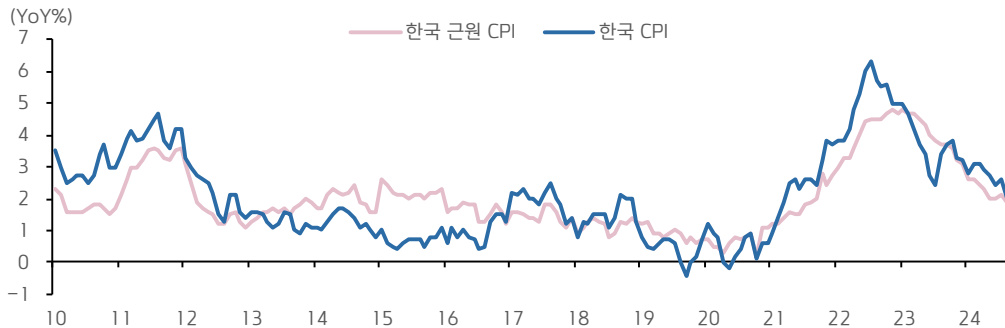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ADP 민간고용 및 JOLTs 구인건수의 변화 추이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한국 CPI의 변화 추이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